

# 제주 '자동차와의 전쟁' 막바지 총력전

### 오늘부터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논란속 본격 시행 대중교통체계 개편·렌터카총량제 도입 등 가속도 교통난·주차난 해소 등 목적... 연착륙 여부 주목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펼치고 있는 '자동차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버스이용 활성화로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주도의 교통대책이 연착륙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7기 1주년 성과로 꼽는 사안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와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실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차고지증명

제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하지만 렌터카 총량제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난항이고,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은 차고지 확보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시행초기 반발과 함께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렌터카총량제는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AJ·한진·해피네트웍스 등 대기업 계열 5개 업체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낸 차량운행 제한 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렌터카에 대한 운행제한

차원 효력은 정지됐다.

제주도는 당초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수가 2만5000대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렌터카 3만 2000여대 가운데 7000대를 6월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렌터카 보유대수에 따라 최대 23%의 감차 비율을 정해 자율 감차를 진행했지만 실적은 1889대로 28%에 불과했다. 자율 감차가 지지부진하자 제주도는 감차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업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대되면서 렌터카 총량제는 비판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불만과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는 별도의 주차

비용 부담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원도심 등은 공영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별도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무로 운영 주차장 전면 유료화, 이면도로 정비 및 노상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범 운영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풀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부과되면 급증하는 자동차로부터 정당한 제주를 지킴은 물론 교통난 등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상복 입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 28일 국회 앞 집회... "특별법 조속 개정하라"

상복을 입은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우리 늙은 유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유족들은 "하루하루가 아쉽고 절망적이다. 평화의 섬 제주가 부끄럽지 않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해야 한다"며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개정안 처리에 더 힘을 모아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족과 관련 단체회원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 사진 결의대회에 참가한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손에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특별법 개정으로부터', '제주도의 간절한 염원이다. 4·3특별법을 개정하라'라고 쓰여있는 종이피켓을 들었다. 유족들은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6개월째 국회 본회의 상정은 커녕 관련 소위원회만 맴돌면서 계류 중인 것에 대해 국회를 성토했다.

김성도 제주4·3특별법개정특위위원장은 "우리 4·3 유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려고 왔다. 만약 올해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과 수단, 범국민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상수 개정4·3유족회 공동대표는 "제주도민 학살 피해 회복은 국가의 책무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정부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그동안 유족들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의원들이 완전한 해결을 한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기다려왔다. 20대 국회가 다 되어가는데 행안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더 이상 앉아서 우두커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0년 전 4·3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어려웠다. 그래도 전체 제주도민들이 뭉쳤다. 또 당시 야당이었던 한라당도 관심을 가졌고, 김대중 대통령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여당이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7월 한달 초지관리 불법행위 강력조치

제주시는 초식가축(소·말·염소 등)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7월 1일부터 한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 관리대상 초지는 8884ha로 전국 초지면적 3만3495ha의 26.5%(도 전체 1만6033ha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토지임대료 상승 및 축산용 사료작물재배 면적 감소, 농산물 과잉공급이 발생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현지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벌이며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1차산업 보조사업제한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8·9월에 월동채소류 파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지내 월동작물 재배 차단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9~10월 중 농정 관련부서와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해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두점박이사슴벌레 방사 28일 제주시 조천읍 선출리 동백동산에서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주최로 열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두점박이사슴벌레 방사 행사'에 참가한 함덕초등학교 선출분교 학생들이 두점박이사슴벌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재난상황때 정전돼도 119신고 가능" 도내 다중시설 954곳 비상발전장치 설치

제주에서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119에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파진흥협회, KT·SK·LGU+ 등 이동통신 3사와 '다

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재난현장 공동대응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

기가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상발전장치가 설치되는 곳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954개소로, 건물주와 동의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공사비는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며,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는다. 송민기기자

## 어린이집 화재... 수천만원 피해

지난 28일 오전 2시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린이집 1층 58㎡와 전자제품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7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